

「あなたたち」と「私たち」とを理解した時間

申 善字

(カトリック大学言語文化学部)

閔 淳奎・青柳にし紀 訳

(信州大学人文学部・人文科科学研究所)

日本人が独立紀念館に行くんだって？

信州大学人文学部日本語教育学科沖裕子先生と日本人学生 10 名、そして韓国人留学生の閔淳奎さんは、3月 6 日我が国を訪問、私たちを含めた日本文化専攻の学生 11 名と 3 泊 4 日間の交流の時間を持つこととなった。ところが、日本人学生の旅行日程を目にした私たちは驚かざるを得なかった。3 泊 4 日の日程の中には「独立紀念館見学」が含まれていたからである。

日本人にとって決して誇らしくない歴史が残される場所に敢えて行こうとする彼女たちの意気込みに驚いたとともに、懸念も少なからずあった。それは、日本人の知る歴史とは反対に位置する我が国の「日本の歴史」が果たして彼女たちに理解できるのであろう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気持ちを持ちながらも、私たちは 3 月 7 日独立紀念館に向かった。我が国に対する厳しい感情を示すかのように、あいにくその日は強風が吹き荒れていた。しかし、日本人学生はこの風の中、私たちよりも強い熱意を持って独立紀念館の展示館を見学していた。私たちも負けじと一生懸命に説明した。たくさんの内容を伝えられるだけの歴史的知識や日本語力を持つに及ばなかつたが、英語や身振り手振りを加え、彼女たちの理解の手助けをしようと努めた。

ついに「日帝侵略館」で、日本人が韓国人に行った拷問を再現したロウ人形を見て、私たち全員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た。しまいには、彼女たちの口から「日本人はあまりにも残酷だ」という言葉まで飛び出た。実際、彼女たちは歴史の教科書で日本の侵略について習ったことがほとんどないと言った。例えば、日本の教科書には「侵略」という単語自体が出てこないという。独立紀念館の見学後、日本人学生は口々に韓・日の歴史についてもっと勉強したいと言った。日本人としては触れたくないはずの歴史を学ぼうとする彼女たちの積極性を見習わなくてはと思った。

次の日、信州大学の学生たちがカトリック大学を訪れた。誠心研修院に集まり、独立紀念館見学の感想を述べる時間があった。彼女たちは独立紀念館に関する徹底した資料調査をもとに熱い討論を交わしてくれた。私たちも自分なりの感想を素直に話す

ことができた。長い討論の末、くだした結論は「二度と戦争は起こしてはいけないし、どのような理由であろうと戦争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

日本人学生はより多くの日本人が独立紀念館に訪れてほしいとも付け加えた。彼女たちと短いながら充実した時間を共にして、私たちが小さい時から思ってきた日本人に対するイメージが薄っていくのを感じた。私たちと同じく戦争を直接体験していない世代であるためか、素直な心で歴史に向かっているようであった。小さい頃から韓国の歴史に触れることのなかった彼女たちは、そのためか、われらの歴史への関心が熱く感じられた。

ほんの短い期間ではあったが、純粋で積極的な彼女たちとの出会いはお互い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良い機会だった。この機会を通して、韓国と日本は政府レベルの外交政策だけでなく、民間レベルの交流の場ももっと増やして欲しいという願いを持つようになった。

最後にこのような良い機会を作ってくださった日本文化専攻の姜錫祐先生と信州大学の沖裕子先生、信州大学に留学した閔淳奎さん、そして信州大学の学生の皆さんに深く感謝の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申 善字（日本文化・3）

写真▲信州大学の学生たちと独立紀念館前で（前列左から2番目が筆者）

제 · 험 · 기

- 일본 신슈대학 학생들과의 만남

‘너희’ 와 ‘우리’ 를 이해했던 시간

‘お前たち’ と ‘私たち’ を 理解した 時間 → こまかいことはあとで ミンさんに たのんで

이 본인이 독립기념관에 간다고?
 신슈대학 일본어교육과의 오키 교수님과 학생 10명,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인 민순규씨는 3월 6일 우리나라를 방문, 나를 포함한 일본문화전공 학생 11명과 3박 4일 동안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여행 일정을 빙이든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3박 4일 일정 중에는 ‘독립기념관 전학’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에 기겠다는 그들의 생각에 놀라운 한편, 우려하는 마음도 적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와 정반대편에 선, 우리나라기 비판하는 ‘일본의 역사’를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의 마음을 안고 우리는 3월 7일 독립기념관으로 향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하는 마음처럼 그늘끼리 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우리보다 더 열성을 보이며 독립기념관의 한 관, 한 관을 전학해 나갔다. 이에 질세라 우리도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비록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역사적 지식도, 일어 실력도 갖추진 못했지만, 영어에 속젓, 빌짓까지 써가며 그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슈대학 학생들과 독립기념관 앞에서(첫째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마침내 ‘일제침략관’에 들어서서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행한 고문을 재현한 것을 보자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았다. 급기야 그들의 입에서는 ‘일본인은 너무 잔인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그들은 국사 교과서에서 일제침략기에 대해 배운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교과서에는 ‘침략’ 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독립기념관을 다 둘러본 후, 그들은 입을 모아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해

좀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로서는 술기고 싶을지도 모르는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그들의 적극성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신슈대학 학생들은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그리고 성실연수원에 모여 독립기념관을 다녀온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독립기념관에 관한 철저한 자료 조사로 토대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들도 우리 나라대로의 느낌을 솔직담백하

게 이야기했다. 오랜 토론 끝에 우리가 얻은 결론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이었다.

그들은 독립기념관에 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들과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일본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인지 순수한 마음으로 역사를 대하는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었던 그들은 그래서인지 둘라도 우리의 역사에 대해 갖는 관심이 뜨거웠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순수하고 적극적인 그들과의 만남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정부차원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의 장도 넓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일본문화전공의 강석우 교수님과 신슈대학의 오키 교수님, 유학생 민순규씨 그리고 신슈대학의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선자 (일본문화 · 3)